3분 백지 테스트

책을 덮고 3분. 빈 종이에 남은 모양을 보면, 지금 내 공부가 **읽는 공부**인지 **꺼내는 공부**인지 보입니다.

STEP 1
책을 덮습니다
오늘 공부한 논점 하나를 정하고, 책과 노트를 모두 덮습니다.

STEP 2
3분만 씁니다
타이머를 3분에 맞추고, 2쪽 백지에 떠오르는 것만 씁니다.

STEP 3
책과 맞춰 봅니다
책을 펴서 빠진 목차를 찾고, 아래 다섯 가지로 점검합니다.

같은 범위, 두 장의 백지 예시 · 행정사실무법 「행정심판에서의 처분사유 추가·변경」

A · 읽기만 한 백지

처분사유 추가변경은 처분청이 심판 중에 사유를 바꾸는 건데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아야 했고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. 이는 이유제시 하자 치유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행정소송이랑 같다고 했던 것 같은데 처분 뒤에 생긴 사실은 안 됐던가…

한 덩어리 문단. 아는 건 많아 보이지만 순서가 없습니다. 무엇이 빠졌는지 스스로 찾을 수 없고, 답안의 뼈대가 되지 않습니다.

B · 꺼내 쓰는 백지

처분사유의 추가·변경

1. 의의 — 처분 당시 사유를 심판 중 추가·변경
2. 취지 — 분쟁 일회 해결 vs 방어권 보호
3. 허용 기준 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
   법적 평가 이전 사회적 사실로 판단
4. 범위 — 처분 당시 있던 사실만
5. 예외 —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있으면 가능
6. ?? — 떠오르지 않음 → 다시 볼 곳

목차가 먼저, 내용은 짧게. 길지 않아도 자리가 분명합니다. 떠오르지 않은 목차까지 보이니, 다시 볼 곳이 바로 나옵니다.

내 백지 점검 해당하면 체크하세요

- [ ] 내용보다 **목차를 먼저** 적었다 · 큰 제목 → 작은 제목 순서
- [ ] 목차마다 **칸을 나눠** 적었다 · 한 문단에 섞이지 않게
- [ ] 목차 아래 **핵심어를 2~3개씩** 붙였다 ·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
- [ ] 떠오르지 않는 목차도 **자리를 비워 표시**했다 · "?" 하나면 충분합니다
- [ ] 책과 맞춰 보고 빠진 곳을 **'다시 볼 곳'에 옮겨** 적었다

체크 0~2개 · 읽는 공부
여러 번 읽어도 남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

체크 3~4개 · 반쯤 꺼내는 공부
방향은 맞습니다. 목차를 더 단단하게 잡으세요.

체크 5개 · 꺼내는 공부
시험장에서 그대로 답안 뼈대가 됩니다.

목차가 반도 차지 않았다면, 노력이 아니라 **방법**을 바꿀 때입니다.
무엇부터 바꿀지, 15분 무료 상담에서 함께 찾습니다.

슬기로운 공부법 · 15분 무료 상담

날짜 _____ 과목 _____ 범위 (단원 · 쪽) _____ 회차 _____

① 책을 덮고 3분 ② 목차부터, 내용은 짧게 ③ 떠오르지 않으면 "?"로 자리만

책은 덮었나요?

다시 볼 곳 책과 맞춰 본 뒤 적기

빠진 목차 · 틀린 내용 _____ 쪽 _____

점검 체크한 개수 ___ / 5

- [ ] 목차를 먼저 적었다
- [ ] 목차마다 칸을 나눴다
- [ ] 핵심어를 2~3개씩 붙였다
- [ ] 모르는 자리를 "?"로 남겼다
- [ ] 다시 볼 곳을 옮겨 적었다

모르는 부분만 한 번 더. "?"가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.